

한국사회의 세대집단에 대한 심리학적 탐색 : 전이적 공존 관점을 통한 대학생 집단의 세대 이미지 분석

황상민[†] · 양진영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20-30대 대학생 집단이 가지고 있는 한국사회의 세대(generation) 또는 다양한 동년배 집단(cohort group)에 관한 이미지를 '사회적 표상'의 개념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세대 집단이라는 것이 특징적인 가치나 라이프스타일로 뚜렷히 표현된다면, 가치와 라이프스타일은 각 세대의 집단 이미지, 또는 사회적 표상(social representation)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1에서는 한국 사회 속에서 다양한 세대집단들에서 나타나는 가치와 라이프스타일의 특성을 공통적인 심리 요인으로 세분화하고자 하였다. 179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하여 89문항에 대해 자신의 가치와 라이프스타일을 표현하였다. '전통적 가족주의', '전통적 집단주의', '개인주의', '문화적 개방성', '물질주의적 삶', '사회의식', '능력과 역할주의', 그리고 '전통위계의식'으로 표현된 8개의 주요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의 8개 요인들을 이용하여 각 세대집단을 특징지우는 '세대의 이미지'에 관한 사회적 표상을 구체화하였다. 20대와 30대에 속하는 25명의 응답자들이 임의로 할당된 6개의 세대모델에 관한 정보를 중심으로 각 세대의 이미지를 비구조화된 Q-sort 방법을 통해 표현하였다. '전통적 가치'에 기반을 둔 세대와 '개인주의적이고 물질적인 가치'의 등장을 알리는 세대, 그리고 '경제적·사회적 성공을 추구하는 세대'의 이미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새로운 문화와 유행에 개방적인 세대'의 이미지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가장 뚜렷하게 부각된 세대'의 이미지들이 확인되었다. 각 세대 이미지들은 내적 유사성에 기초하여 4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다양한 세대집단의 이미지를 고려한 결과 한국 사회 속의 세대 이미지는 '전통·보수형', '개인·개방형', '사회·개혁형', 그리고 '중도·안정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각 세대집단은 대표적인 유형으로 표현될 수 있었지만, 특정 연령집단을 중심으로 한 세대의 이미지는 최소 2개 이상의 유형으로 세분화될 수 있었다.

주제어 : 세대, 동년배집단, 세대이미지, 사회적 표상, 세대 프로파일

사람들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거나 적은 사람들이 자는 것을 보면서 쉽게 '세대(generation)'를 탓한다. 직장
신이나 자신이 속한 부류와 다르게 생각하거나 행동하 생활에 대해 도움되는 얘기를 하는 선배에게 '몇 년 경

[†] 교신저자 : 황상민(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 심리학과, swhang@yonsei.ac.kr) 혹은 양진영(연세대 심리학과 박사과정, siru@yonsei.ac.kr). 이 논문의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힘 좀 쌓고 나가야죠. 월급장이가 그렇죠'라고 말하는 나이 어린 후배를 볼 때, 그리고 업무에 대해 새로운 제안을 하면 '하던대로 해, 다 경험에서 나온거야.'라며 묵살하는 나이 많은 상사를 볼 때, 모두들 세대차이를 느낀다고 한다. 언론매체도 이런 비슷한 일화들을 소재로 하여, 세대 또는 '세대차(generational gap)'의 존재를 언급하면서 관심과 우려를 드러낸다.

세대론 또는 세대논쟁은 흥미로운 주제이지만, 각 세대들이 보이는 심리적 특성이나 행동양식에 대한 논의는 학문적 탐구의 대상보다는 언론에 의해 생산되는 경향이 크다. 월드컵이 끝나기 무섭게 W세대 또는 R세대론이 나오는 것은 언론의 선성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언론매체나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세대들의 행동방식에 관한 '심리학적 해석'은 전문가의 표현 그것이다. 'X세대'들은 언제든지 할 말은 해야 하고 '자신'이 중심이 되어 무엇보다 남과 다른 '나'를 추구하기를 중시하는 사람들이다(조선일보, 2001. 6. 19일자). '386세대'는 사회의식이 강하고 기존의 세력에 대한 저항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이다(동아일보, 2000. 2. 16일자). 그리고, 청소년들은 '자신과 다른 개성의 소유자를 받아들이는 포용력이 부족하다'(주간한국, 2000. 1.5일자)는 주장이나, '남과 다른 자신을 추구한다는 X세대들도 불황이 지속되자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안주하고 있다'(동아일보, 2000. 10. 19)는 기사들이 있다. 이런 보도들은 한국사회에서 동시대 사람들 간에 존재하는 '세대(혹은 연령)'의 행동양식과 가치에 대한 학계의 연구보고들과 비교적 일치한다(구자숙·한준·김명언, 1999; 김명언·김의철·박영신, 2000; 나은영·민경환, 1998; 나은영·차재호, 1999; 한규석·신수진, 1999).

한국 사회는 "변화속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세대차가 그만큼 크게 벌어져 가장 큰 세대차를 보이는 나라이다"(Inglehart, 1997)라고 알려져있다. 이 때문에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마치 서로 다른 이중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것처럼 보인다(나은영·민경환, 1998). 정철희(1997)는 한국의 세대별 가치유형을 비율로 구분한 연구에서 이 현상을 보고하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물질주의자 비율이 더 높았고 젊은 층일수록 탈물질주의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즉 기성 세대일수록 성취지향의 근대적 가치, 즉 물질주의가 많이 남아

있으며, 신세대일수록 가치 표현에서 탈근대적 가치인 탈물질주의 가치를 많이 발견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그 연구가 언제 이루어졌는가에 따라 서로 상이한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 미시적 차원에서 1979년에 600명의 기성성인을 대상으로 가치, 태도 및 신념의 세대차를 조사하였던 차재호(1985)의 연구에 의하면, 그 당시의 신세대들은 기성세대들보다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 더 많으며, 물질적인 풍요와 힘을 중요시하면서도 돈을 기성세대보다 덜 귀하게 여기는 이상주의적인 측면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이같은 세대연구들의 결과에 대해서 나은영·민경환(1998)은 세대차의 발생과 더불어 일어나는 한국 사회의 가치의 이중성이라고 하면서, 이것에 대해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진 세대집단들이 동시대에 공존한다는 "전이적 공존" 패러다임을 도입하여 설명하였다.

'전이적 공존'은 '비동시성의 동시적 공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즉 전통·근대·탈현대라는 각기 다른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가치의 틀이 동시대에 생겨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 시점에서 따라 기성세대와 신세대는 '근대적 생각이나 규범, 그리고 전통적 관행과 행동에 얽매는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신세대는 탈근대적 생각과 행동을 한다는 면에서 사회의 변화에 따른 생각이나 규범에서의 이중성은 적으나, 사회의 공식적 규범을 만들어낼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거나 표현하는 생각이나 규범은 공식적 규범과 행동과 심각한 괴리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나은영·민경환, 1998; 재인용). 이런 세대의 차이는 한국사회의 대표적 특성으로 지적되는 가치의 이중성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된다. 실제적인 사회 권력을 가진 기성세대들이 가진 공식적 규범과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가치들은 불일치가 있으며, 여기에서 신세대들은 기성세대와 조금 다른 탈현대적, 탈물질주의적 생각을 지니고 있으면서 기성세대와는 다르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와 세대차의 변화에 대한 나은영·차재호(1999)의 연구에 따르면, 1990년대 말에 가장 눈에 띄는 한국인의 가치관 특성은 1) 자신과 가족 중심의 개인주의 증가(특히, 젊은 층과 고학력/고소득층을 중심으로), 2) 여성에 대한 의식 변화(사회활동, 정조

관념 등), 3) 탈물질주의 가치 증가 경향 주출(IMF 이후 물질주의쪽으로 약간 되돌아감), 4) 자기주장성 및 불확실성 수용경향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이런 측면에서 1970년대에 비해 뚜렷한 시대변화를 보인 가치관들은 주로 남녀평등의식, 자신과 가족중심의 개인주의, 자기주장성 및 풍요로운 생활의 추구차원에서 관찰되었다. 뚜렷한 세대차 증가를 보인 항목들은 주로 풍부한 인생 중시, 정조관념 및 상하구별 경시, 개인주의의 증가와 관련된 가치들이었다. 자기 주장성, 남녀 평등의식 및 풍요로운 생활을 향한 변화를 젊은층은 비교적 빨리 받아들이고 고연령층은 뒤늦게 수용하기 때문에 세대차나 가치의 이질성은 사회의 변화 속도에 비례하여 그만큼 더 커지게 된다.

한국인이 선호하는 가치가 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로 변화한다고 보고한 한규석·신수진(1999)의 연구도 이와 유사한 현상을 보여준다. Triandis(1995)의 개인-집단주의와 수직-수평의 두 축을 적용한 이 연구는 한국사회의 가치 집단 유형은 수평-개인주의자(46%), 수평-집단주의자(28%), 수직-집단주의자(21%), 수직-개인주의자(5%)의 순으로 분포되었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비율면에서 개인주의자들이 집단주의자들과 비슷하게 나타났다(51% 대 49%)고 보고하였지만, 더 중요한 결과는 일차적으로 수직적 사회(26%)에서 수평적 사회(74%)로의 전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연구자들은 한국 사회의 변화는 낮은 연령대와 고학력대에서 모두에서 개인주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모든 계층에서 수평성향자가 수직성향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이것은 한국사회의 문화가 전통의 수직-집단주의에서 수평-개인주의로의 변화가 있다고 해석하는 기초가 된다.

발달적 변화와 세대 이미지의 변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대는 아버지와 자식세대처럼 상호관계의 위치를 구분하거나, 청소년세대나 장년세대처럼 생애순환주기의 어느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또는 4.19세대나 유신세대와 같이 어떤 특정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을 총칭할 때, 그리고 나이를 먹음에 따라 연령층을 함

께 이동하는 동년배집단(cohort)을 의미할 때 사용된다(구지숙·한준·김명인, 1999; 재인용). 이들 개념들의 공통된 특성은 세대를 특정무리의 사람들로 설정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바로 사회가 급변하면서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등장함에 따라 특정 시대 사회적 경험을 공유하면서 유사한 행동특성을 보이는 사람들을 동일한 부류로 묶으려는 현상이다.

세대를 사회학적 시각으로 보았던 Mannheim(1952)에 따르면, 어떤 특정한 사회적, 역사적 공간에 태어난 연령집단은 자신들을 하나로 긴밀히 결합시키는 특정한 공동경험을 하게 되며, 이를 통해 '우리'라고 할 수 있는 공통적인 정서를 형성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는 기초라고 설명하였다. 즉, 비슷한 시기에 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떤 역사적 사건과 상황을 '생애순환주기(life cycle)'상으로 동일한 단계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물론 특정 사회의 생활과 문화 환경을 만들고, 그 사회의 문화적 성격을 규정하는 세대, 즉 동년배집단은 생애순환주기 중 성인기 중반에 속하는 집단이다(Levinson, 1978). 그럼에도 동년배집단의 성격은 그 집단이 청소년기에 경험했던 생활문화와 사회적 경험에서 그 기본적인 틀이 이루어진다(Mannheim, 1952; 황상민, 1999). 이 이유에 대해 Mannheim(1952)은 '경험 성층화(stratification of experience)'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사람들은 17세 전후의 청소년기가 되어 비로소 사물에 대해 진정으로 의문을 품으며 삶의 문제를 자신의 현재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동년배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을 '세대'라고 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자아가 자신이 속한 세대별 특성들-가치, 태도, 신념, 행동양식, 생활방식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즉, '세대'는 개인의 발달 과정에서 하나의 사회문화적 맥락으로서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2002년 현재 20대는 1970년에 20대를 보냈던 지금의 40대와는 전혀 다른 가치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그들이 20대라는 동일한 연령대를 거쳤고 현재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할지라도, 그들이 경험했던 특수한 역사적·사회문화적 맥락에 의해 서로 다른 의식구조와 행동방식을 보이게 된다. 세대의 문제를 논의할 때, 발달 단계에 따른 청소년 또는 청년기나, 성인기이나

의 문제 뿐만 아니라 이들이 어떤 시대를 경험하면서 발달하였는가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세대차나 가치 변화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연구 시점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가치의 변화를 단순히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차이와 연결시켜 설명하였다. 전이적 공존의 관점에서 이런 차이를 본다면, 그 사회의 어떤 세대집단이 어떤 가치를 나타내는지를 명확히 밝혀 내지 못할 뿐 만 아니라, 규범적으로 지배적인 세대집단과 사고나 행동으로 뚜렷하게 드러나는 세대집단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할 수 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항상 세대 간의 차이는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차이가 현실 생활에서 경험하는 사고방식이나 행동 표현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 특히, 특정 세대의 가치가 연구시점에서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 물론 이런 세대 변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단기횡단적(cross-sectional) 방법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방법론적 문제도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면, 2002년 현재 한국사회에 어떤 세대들이 존재하며, 그들의 특성들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한국사회의 세대집단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본격적인 탐색은 각 세대의 특성들을 심리적인 특성으로 구체적으로 제안했던 황상민(1999)의 한국 사회의 세대 모형을 기초로 한다. 황상민·양진영(2001)은 한국사회의 구성원을 이루는 다양한 동년배 집단들이 공유하는 역사적 사건, 행동 방식, 의식특성들을 생애 주기상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여러 세대를 구분하였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현재 한국사회의 구성원을 특징짓는 여러 세대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세대는 1925년부터 1934년 사이에 태어난 '해방 전후복구세대'이다. 이들은 청소년기 동안에 농업중심의 경제체제 하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절대 빈곤층을 이루었던 식민지 시대를 거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의 극한 대립상황에서 해방과 6.25전쟁을 경험하였다. 두 번째는 '근대화세대(1940-1949년)'로 이들은 5.16 쿠데타 이후 군사정권 아래에서 한일국교가 정상화되고 베트남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보았다. 출산 억제정책·반공의식 함양·학력수준 증가·이농현상 대두와 같은 시대적 상황이 일어나던 1960년대에 청소년기를 보냈으며,

현재는 중년기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5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에 해당한다. 세 번째, '경제부흥기세대(1950-1959년)'는 유신체제가 도입하던 독재관료제 시절에 새마을운동, 수출진흥정책 그리고 자본집약적 중화학 공업의 육성이 고조되고, 사회적으로는 학력수준이 상승하고 자녀교육비가 증가하며 본격적인 도시화가 이루어지던 1970년대에 청소년기를 보냈던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네 번째, '민주화세대(1960-1969년)', 일명 386세대로 불리는 이들은 민주화운동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남북고향 방문단 교류나 88서울올림픽과 같은 시대적 흐름 속에서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냈다. 이들은 전자산업이나 자동차산업을 위시한 기술 집약적 산업의 발달로 고도의 경제성장기를 향유하고 사회적으로 통금이나 교복 등 각종 규제가 해제되던 시대를 경험하였던 현재 우리 사회의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자율화세대(1970-1979년)', 일명 X세대는 문민정부가 출범하고 정치세대 교체가 가속화되며 민주화가 정착되던 시기에 청소년기를 보냈으며, IMF 경제 위기나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붕괴를 경험하면서 세계화 등과 같은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20대에 경험하면서 지금은 20중반과 30대 초반에 걸친 세대이다. 마지막으로 '신인류세대(1980-1990년)', 일명 N세대는 경제적 회복과 정보화 산업의 확산, 그리고 인터넷의 보급, 남북간 교류의 증가 등 정보화 사회와 통일시대에 따른 혼란과 기회가 혼재된 급속한 사회환경을 경험하면서, 산업 사회가 만들어 놓은 사회 환경에서 사이버 문화를 경험하고 있는 현재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10대들이다. (부록 1 참조)

특정 사회 속에 속한 개인은 자신과 자신이 속한 세대 그리고 자신이 속하는 사회의 구성원들에 대해 구체적인 세대의 이미지라고 이름붙일 수 있는 '사회적 표상(social representation)'을 형성하게 된다(Purkhardt, 1993). 사람들이 특정주제나 사건 또는 현상에 대해 사회적 표상을 형성하게 되면,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사건이나 사람, 사물 등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표상에 맞추어 관례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Purkhardt, 1993; 황상민, 1997; 최상진·한규석, 2000). 세대라고 이름 붙여진 사회적 표상은 마치 규범과 같이 그 사회 속의 개인이 저항할 수 없이 그

들에 의한 행동을 하게 만든다. 한국 사회의 각 세대들이 전통주의적 가치에서 진보주의적 가치로 변화하고 있다는 선행연구들이 있음(나은영·차재호, 1999; 한규석·신수진, 1999)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런 가치들이 특정 세대의 가치나 라이프스타일로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표상화되어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2·30대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다양한 세대에 대한 개념들이 가치나 삶의 방식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드러나며, 또 이들 세대의 이미지가 특정 세대를 다른 세대와 구분짓을 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를 경험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비록 일군의 사람들이 대상이라 할지라도, 이들을 통해서 각기 다른 세대를 뚜렷하게 구분하는 특성들은 무엇이고,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각 세대의 이미지들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런 각 세대에 관한 이미지들이 서로 공유되는 사회적 표상으로서 존재하는가 등의 문제를 탐색할 것이다.

연구 1

연구1은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세대들을 특징짓는 가치와 라이프스타일을 평가하는 기준을 찾는 탐색적 작업이다. 세대를 특징짓는 평가기준에 대한 탐색은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세대모형과 세대특성, 그리고 세대 차이를 나타내는 문항을 중심으로 구성된 89개의 문항에서 시작되었다(구자숙·한준·김명연, 1999; 김명연·김의철·박영신, 2000; 나은영·차재호, 1999; 황상민, 1999; 황상민·양진영, 2001).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세대의 가치와 라이프스타일을 나타내는 다양한 문항들이 어떤 하위요인으로 표현되는가를 탐색하는데 있다. 여기서 나온 세대 가치와 라이프스타일의 하위 요인들은 후속연구에서 각기 다른 세대 집단을 비교하는 평가 기준이 될 것이다.

방 법

조사대상자

연구의 참가자들은 연세대학교에 재학하는 남녀 대학

생 175명이었다. 남학생은 80명(45.7%)이었으며, 여학생은 95명(54.3%)이었다. 조사대상의 연령범위는 19세~28세였으며 평균연령은 24세였다. 연령 차이가 약 10년 정도의 분포를 보이기 때문에, 이들의 반응이 한국 사회 전반의 가치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반영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도구와 절차

한국 사회 속에 있는 다양한 동년배 집단들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가치와 라이프스타일을 확인하기 위한 본 연구를 위해 '가치와 라이프스타일'을 나타내는 89개의 문항이 선정되었다. 이들 89개 문항들은 선행 연구들에서 언급된 한국 사회의 세대 특성과 세대 유형의 모델을 기초로 만들어졌다(나은영·민경환, 1998; 황상민, 1999; 황상민·양진영, 2001). 특히, 황상민·양진영(2001)의 연구에서 사용된 '자기표현가치', '가족가치', '전통가치', '사회외식가치', '경제관', '윤리관', '삶의 질 가치', '문화적 가치'와 '국제관'으로 세분화된 가치 기준들이 문항 선정에 이용되었다. 예를 들어, '자기표현가치'범주에는 '생활 속에서 자신을 표현할 수단이나 능력이 부족하다', '원만한 사람으로 보이도록 자신을 표현한다',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거나 의사소통하는 데 익숙하다'와 같은 문항들로, '가족가치'는 '자식은 부모의 뜻을 따라야 한다', '가족내 문제는 가장이 결정한다', '가족내 문제에 대해 부부와 자녀 모두 의사결정에 참여한다'와 같은 문항들로 작성되었다. 이 문항들을 중심으로 연구 참가자들에게 리커트 척도 형식(1 : 전혀 그렇지 않다~6 : 매우 그렇다)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제시하였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생활방식과 가치를 고려하여 각 척도 문항에 대해 자신이 동의하는 정도를 평가하였다.

자료분석

연구의 목적이 각기 다른 세대를 특징짓는 문항들을 찾아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연구참가자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분석을 통해 89개의 문항들을 가지고 한국 사회 속의 다양한 세대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몇가지 요인들이 무엇이 나타나 있는가를 찾아 보고자 하였다. 만일 다양한 세대들을 특

정지울 수 있는 대표적인 가치나 라이프스타일을 나타내는 요인들이 추출된다면, 우리는 이들 요인을 기준으로 각 세대 집단들이 보이는 이미지를 상호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 연구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세대를 특징지우는 요인구조를 가정하지는 않는다. 단지, 다양한 세대집단을 구분하는 가치와 라이프스타일을 표현하는 대표 요인들을 축약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결 과

세대의 가치와 라이프스타일을 알아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 89개 문항들에 대한 대학생 응답자들의 반응을 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varimax rotation)한 결과 스크린 플롯에 따라 8개 요인으로 가장 잘 나타났다. 이 요인 분석의 목적은 문항반응에 내재한 어떤 반응 구조를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89개의

반응들이 경험적 토대 속에서 얼마나 개념적으로 서로 동질적인 문항으로 분류되는가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요인분석의 목표도 각 요인에 적합하지 않은 문항을 걸러내고, 유사성에 따라 서로 동일한 요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문항들을 선정하는데 초점을 두었다(표 1). 전체 89개 문항들은 결국 요인 분류를 통해 32문항이 제외된 57문항의 8개 요인(전통적 가족주의, 전통적 집단주의, 개인주의, 문화적 개방성, 물질주의, 사회의식, 능력과 역할주의, 전통위계의식)으로 축소 표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표 2).

표 1. 세대가치와 라이프스타일을 나타내는 요인분석 결과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요인8
고유가	6.59	3.98	3.63	3.29	2.74	2.62	2.43	2.14
설명변량(%)	11.56	6.99	6.36	5.77	4.81	4.60	4.26	3.76
누가설명량(%)	11.56	18.55	24.91	30.68	35.50	40.10	44.36	48.12

표 2. 세대의 가치와 라이프스타일을 나타내는 요인들의 명칭, 문항, 그리고 문항들의 요인부하량

명 명	문 항	요인값
전통적 가족주의	· 일단 결혼한 후에는 무슨 일이 생겨도 참고 살아야 한다.	.750
	· 가정내에서 남편은 생계를, 아내는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	.705
	· 부부간에 애정이 없더라도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이혼하지 말아야 한다.	.696
	· 자식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삶의 목표이다.	.629
	·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아들이 좋다.	.586
	· 가족내의 문제는 가장이 해결한다.	.578
	· 가문을 이을 아이는 반드시 아들이어야 한다.	.568
	· 결혼할 나이가 되면 당연히 결혼해야 한다.	.554
	· 남자는 대의를 위해 일해야 하므로 가사 일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515
	· 내가 힘들더라도 가족을 위해서라면 희생해야 한다.	.491
전통적 집단주의	· 인간관계의 상하서열은 사회의 기본원리로서 중요하다.	.671
	· 내가 속한 조직의 목표가 다르다면 이것은 나에게 심각한 고민이다.	.616
	· 연장자에게는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560
	· 집단구성원들이 정한 규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557
	· 부모는 자식이 독자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551
	· 딸이든 아들이든 구별없이 잘 키우면 된다.	-.518
개인주의	· 자식은 부모의 뜻에 따라야 한다.	.473
	·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나만의 개성을 마음껏 발휘한다.	.695
	· 나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느끼고 경험한대로 행동한다.	.681
	· 나는 할 말이 있으면 반드시 얘기한다.	.675
	· 직업선택의 조건에서 무엇보다 안정성이 중요하다.	-.635
	· 나는 원만한 사람으로 보이도록 노력한다.	-.626
	· 변화가 많은 생활방식보다는 안정된 생활방식을 추구한다.	-.613
	· 내가 속한 집단의 가치보다 나 개인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	.539

표 2. (계속)

명 명	문 항	요인값
문화적 개방성	· 나는 외국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빨리 수용한다.	.685
	· 논리나 이성보다는 감성과 감각이 더 우선한다.	.642
	· 나는 일본의 문화와 유행에 관심이 많고 개방적이다.	.641
	· 직업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개인적인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는 것이다.	.479
물질주의적 삶	· 우리가족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675
	· 내 삶의 목표는 남들처럼 잘 살아보는 것이다.	.661
	· 풍요롭게 살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한다.	.638
	·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배경이나 연줄이 중요하다.	.589
	· 나는 사람들에게 인기있는 직업이 좋다.	.558
	· 나는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이 좋다.	.549
	· 성공의 척도는 물질적으로 풍요한 정도이다.	.525
	· 돈은 즐기 위해서 필요하다.	.462
	·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할 수 있다.	.388
	· 돈은 자식의 미래를 위해 쓸 때 가치가 있다.	.362
사회이식	· 정부나 사회의 부조리에 대항하기 위해 시위를 해야 한다.	.698
	· 시위를 하는 것은 집단의 입장을 밝히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578
	· 정치나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고 비판적이다.	.558
	·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때로는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511
	· 나는 남북한 통일문제에 관심이 많다.	.494
	· 시사토론이나 뉴스프로그램을 즐겨본다.	.444
능력과 역할주의	· 나에게서 일만큼이나 여가도 중요하다.	.591
	· 능력과 학력이 같다면 남자는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588
	· 자기계발은 삶의 목표이다.	.540
	· 직업선택에서 무엇보다 개인능력의 발휘가 중요하다.	.496
	·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가사 일을 분담해야 한다.	.475
	· 나는 유행에 민감하다.	.401
전통 위계의식	· 직업은 무엇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어야 한다.	.346
	· 나이든 어른들에게서 본받을 점이 많다.	.726
	· “어른들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옛말은 옳다.	.576
	· 지금의 나는 부모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다.	.494
	· 시대가 변해도 전통적인 가르침은 변함없이 지켜져야 한다.	.480
	· 자식이 연로한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은 당연하다.	.452
	· 전통적인(유교) 도덕가치들은 인간의 도리로서 지켜야 한다.	.418

‘전통적 가족주의’로 명명된 요인을 나타내는 문항들은 주로 가족과 결혼에 관한 가치에 대한 것이다. 여기에는 ‘일단 결혼한 후에는 무슨 일이 생겨도 참고 살아야 한다’와 같은 전통적 결혼관에 관한 문항들, ‘가문을 이을 아이는 반드시 아들이어야 한다’와 같은 남아선호 사상, ‘가족 내의 문제는 가장이 해결한다’와 같은 가부장적 태도, ‘자식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삶의 목표이다’처럼 가족이나 자식을 위한 희생적 태도와 ‘가정 내에서 남편은 생계를, 아내는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와 같은 가정내 성역할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통적 집단주의’라고 명명된 요인에서는 가족을 포함한 집단이나 조직과 그 구성원으로서의 태도를 표현한다. 여기에는 ‘내가 속한 조직의 목표가 다르다면 이것은 나에게 심각한 고민이다’, ‘집단구성원들이 정한 규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자식은 부모의 뜻을 따라야 한다’, ‘연장자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와 같은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개인주의’라고 명명된 요인에는 개성, 자유, 평등 그리고 변화를 지향하는 개인주의적 가치에 관한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나만의 개성을 마음껏 발휘한다’와 같은 개성에 관한 문항들, ‘나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느끼고 경험한대로 행동한다’와 같은 개인적 자유와 ‘내가 속한 집단의 가치보다 나 개인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와 같은 개인 가치의 존중을 나타내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문화적 개방성’이라고 명명된 요인에는 외국문화에 관한 수용적이고 개방적 태도, 감성적이고 감각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문항들은 ‘나는 외국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빨리 수용한다’, ‘논리나 이성보다는 감성과 감각이 더 우선한다’와 같은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물질주의적 삶’이라고 명명된 요인에는 직업선택이나 금전에 대한 태도나 경제적인 성공과 사회적 성공에 관한 가치를 반영하는 문항들이 묶였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것의 중요성을 표현하거나 풍요로운 삶을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문항들로 분류되었다. 사회적 성공을 지향하는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사회적 의식’이라고 명명된 요인에는 정치나 사회문제, 혹은 국제관계에 대한 관심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태도에 관련된 문항들이 있었다. 특히, 여기에는 ‘정부’에 대한 태도와 더불어 미국과 같은 강대국에 대한 일반인들의 반응을 알아볼 수 있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능력과 역할주의’로 명명된 요인은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사회적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표현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능력과 학력이 같다면 남자는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자기계발은 삶의 목표이다’, ‘직업선택에서 무엇보다 개인 능력의 발휘가 중요하다’와 같은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전통위계의식’이라고 명명된 요인에는 사회규범과 사회원리로서의 도덕적 가치에 관한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나이트 어른들에게서 본받을 점이 많다’, ‘시대가 변해도 전통적인 가르침은 변함없이 지켜져야 한다’, ‘어른들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옛말은 옳다’와 같은 문항들이었다. 이들 57개 문항들을 ‘세대의 가치와 라이프스타일’을 나타내는 심리적 척도로 평가한다면, 연구 참가자들의 반응으로 평가한 척도의 신뢰성은 .79였다.

표 3에는 57개 문항으로 구성된 8개 요인들간의 상관관계가 제시되어 있다. ‘전통적 가족주의’요인은 ‘전통위계의식’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고, ‘전통적 집단주의’와 ‘물질주의적 삶’요인과의 높은 상관을 보였

표 3. 세대의 가치와 라이프스타일을 특징짓는 8개 요인들간의 상관관계

	전통적 가족주의	전통적 집단주의	개인주의	문화적 개방성	물질주의적 삶	사회적의식	능력과 역할주의	전통위계 의식
전통적 가족주의	-							
전통적 집단주의	.395**	-						
개인주의	.097	.047	-					
문화적 개방성	.032	.032	.234*	-				
물질주의적 삶	.313**	.362**	.227*	.113	-			
사회적의식	.006	.04	.030	-.012	-.129	-		
능력과 역할주의	-.227*	.102	.086	.217*	.043	.137	-	
전통위계 의식	.442**	.420**	.069	.022	.145	.086	-.19*	-

**p < .01, *p < .05

다. 이처럼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가치를 반영하는 '전통적 가족주의'와 '전통위계의식' 요인은 '능력과 역할주의'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이 '능력과 역할주의'는 '문화적 개방성'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정리하면, '전통적 가족주의', '전통적 집단주의'와 '전통위계의식'은 서로 높은 상관을 보였고, '물질주의적 삶'은 '전통적 가족주의', '전통적 집단주의', 그리고 '개인주의'와 높은 상관을 보였다.

연구 2

한국 사회에는 단순히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또는 부모세대와 자식세대로 구분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동년배집단이 존재하지만 이들 동년배 집단을 특징짓는 세대의 가치와 라이프스타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탐색이 부족하였다. 또한 한국사회의 각 세대들이 전통주의적 가치에서 진보주의적 가치로 변화하고 있다는 선행연구들(김명연·김의철·박영신, 2000; 나은영·민경환, 1998; 나은영·차재호, 1999; 한규석·신수진, 1999)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들 가치들이 각 세대를 특징짓고 구분하는 과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연구도 비교적 제한적이었다.

연구 2에서는 2002년 현재 한국사회의 고학력 젊은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세대들에 대한 이미지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상되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사회의 다양한 세대를 특징짓는 행동적, 심리적 기준이 무엇인지를 밝혀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2는 개념적으로 제시된 6개 세대에서 뚜렷하게 부각되는 세대의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탐색하였다. 여기서는 일군의 사람들이 특정 세대에 대해 가지는 심리적 이미지를 사회적 표상으로 개념화하면서, 이 표상이 각 동년배 집단의 이미지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방 법

참가자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생들 25명으로, 남자가 11명이었고 여자가 14명이었다. 참가자의 연령범위는 22세~39세였으며, 이들의 평균연

령은 29세였다. 각 참가자들은 개별적으로 연구자와 면담하는 형태로 연구에 참가하였다. 한 사람의 평균 면담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참가자들은 비교적 구조화된 절차에 따라 정해진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연구에 참가하였다.

도구와 절차

연구참가자들은 일상적인 면접조사의 형태를 띤 구조화된 질문과 과제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이 연구에 참가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의 개인적인 생활 방식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으로 꾸며졌으며, 이에 덧붙여 각 참가자들은 다른 세대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간단하게 표현하도록 하였다.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다른 세대에 대한 기술은 세대모델에 의해 추출된 시대배경과 삶의 형태를 간략하게 알려주는 방식을 취하였다.

참가자는 먼저 반응에 대한 지시문과 3점 척도로 이루어진 응답 반응판(sorting board), 그리고 연구참가자의 인적 배경을 물어보는 질문지를 받았다. 참가자는 한국 사회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6개의 세대에 대한 설명을 담은 지문카드(21cm×14cm)를 받고 읽었다. 그리고 다 읽은 다음에 가치와 라이프 스타일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문항 카드를 받고, 자신이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소팅(sorting)을 하도록 하였다. 참가자들이 사용한 가치와 라이프 스타일을 나타내는 문항들은 연구 1에서 추출된 57개 문항 이외에 선행 연구들에서 언급된 문항들을 모두 포함하여 총 159개였다. 응답 반응을 57개가 아닌 159개로 확대한 것은 각 세대에 대한 다양한 생각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다양한 반응을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나중에 선택된 항목들의 분포를 볼 때, 57개 문항들이 거의 주요 항목으로 이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연구결과도 57개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각 항목들은 인덱스 카드(15cm×10cm)로 제시되었다.

참가자는 무작위적으로 6장으로 이루어진 세대지문카드 중에서 하나를 뽑은 후 소리내어 읽는다. 세대 지문 카드를 읽고 세대의 이미지를 연상한 후에 159장의 문항카드 중에서 그 세대의 특성이라고 생각하는 문항 카드를 최대 30장까지 선택하였다. 일차적으로 뽑힌 30장을 그 세대의 특징과 잘 들어맞는 정도에 따라 3점

척도판('1: 별로', '2: 보통', '3: 아주 잘') 위에 다시 소팅하였다. 이런 절차를 모두 6개의 세대에 동일하게 반복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평가 세션이 끝난 후에, 마지막에 인구배경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세대 지문 카드에는 각 세대의 연령시기와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황상민, 1999; 황상민·양진영, 2001). 이 절차가 6개 세대 모두에 대해 반복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세대 지문이 각 참가자에게 제시되는 순서는 무선적으로 이루어졌다. 다음은 '근대화 세대'의 세대 지문 카드의 예이다. (부록 2참조)

"이들은 현재 50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1940년에서 1949년 사이에 태어난 이들은 성인으로 성장하는 동안에 1960년 4.19혁명, 1961년 5.16쿠데타, 박정희 정권 하에서 제3공화국, 1964년 한일국교정상화, 1965년 베트남 참전, 1968년 1.21청와대 습격사건 등을 경험하였다. 당시 경제적 상황은 1962년 정부가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경공업, 즉 식품이나 의류 등의 노동집약적 산업을 육성하여, 이후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이 시대는 1962년 출산억제정책이 시행되었고, 반공의식이 강조되는 등 계몽과 규제가 강조되던 때였다. 전세대에 비해 중졸 학력자의 수가 증가하여 점차 학력수준이 높아졌고, 60년대 말쯤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문화의 열풍이 불었다. 그리고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인력이 몰리는 이농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들은 국가가 주도하는 개혁운동에 단결, 협동하여 참여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규율을 지키려 하며, 전통적 가치를 존중하였다. 북한의 남침위협이 커서 철저한 반공 교육을 받았고, 자녀교육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여성의 일할 기회가 늘어났고, 여성인력의 비중도 커졌다. 장년기를 보내는 이들은 자신의 일에서 차츰 물러나서 삶에 대한 관조와 내적인 탐색을 한다. 또한 남녀 모두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

자료 분석

결과 분석은 연구 1에서 추출된 8개의 가치와 라이프스타일 요인에 기초한 프로파일 비교와 요인에 기초한 군집분석(Quick Cluster)의 2가지 방법을 적용하였다. 세대별 프로파일은 각 세대 집단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연구 1에서 추출된 8개 요인의 57개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 반응들은 평정 원점수들을 z점수로 환산한 후에 문항의 개별 총합 점수가 되어 요인들 간의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군집분석은 한국사회에서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는 세대 모델이 실제로 가치와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응답 반응을 통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실제 연구 참가자들이 평가한 반응은 개념적으로 구성된 세대모델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군집분석은 8개 요인을 기준으로 6세 세대 집단으로 구분된 반응들이 어떻게 서로 분류되는지를 살펴 보았다.

결 과

세대 이미지의 사회적 표상

연구 1에서는 대학생들의 반응을 통해서 2002년의 한국 사회에서 세대를 나타내는 가치와 라이프스타일을 8개의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8개 요인들은 연구 2에서는 소수의 2·30대 성인들의 반응을 통해서 개념적으로 구성된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세대집단 또는 동년배집단(cohort group)을 구분하는데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6개 세대에 따른 각기 8개 요인들을 비교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8개 모든 요인들이 통계적으로 아주 의미있었다(전통적 가족주의 $F_{5,144}=96.70, p<.001$; 전통적 집단주의 $F_{5,144}=6.08, p<.001$; 개인주의 $F_{5,144}=21.42, p<.001$; 문화적 개방성 $F_{5,144}=71.01, p<.001$; 물질주의적 삶 $F_{5,144}=19.79, p<.001$; 사회의식 $F_{5,144}=21.00, p<.001$; 능력과 역할주의 $F_{5,144}=52.24, p<.001$; 전통위계의식 $F_{5,144}=71.00, p<.001$). 이로써 6개 세대집단을 구분하는 유용한 지표로서 8개 요인들에 의한 각 세대집단의 프로파일은 그림 1과 그림 2에 나타나있다.

2·30대의 성인초기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각 세대 집단 간의 구체적인 차이는 그림 1에서 보듯이 6개 세대집단 중 가장 연장자인 두세대들(해방전후복구세대, 경제부흥세대)와 가장 젊은 두세대들(자율화세대, 신인류세대)의 특성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해방전후복구세대'에 대한 사회적 표상은 전통적 가치에 기반을 둔 세대 이미지였다. 가부장적 권위를 존중하고 가정내의 고정관념적 성역할에 충실하며 가족을 위한 희생에 당연시하는 전통적 가족주의와 사회 규범의 원리로서 유

교적 전통과 가르침을 존중하는 전통적 위계의식이 특징적이었다. 또한 이 세대는 어떤 조직이든지 집단구성원으로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가치를 두었다. 이들은 집단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배타적인 특성을 보였다. 반면, 이들에게 개인의 능력과 역할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가치에 대한 존중하는 그리고 다른 문화에 대한 개방적인 이미지를 찾아볼 수는 없었다. 최고령세대의 이런 사회적 표상은 그 다음 세대인 '근대화세대'에서 다소 변하였다. 전통적 위계의식은 급격하게 낮아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전통성을 존중하는 세대이미지는 남아있었다. 그러나 개인주의적 가치, 정치나 사회에 대한 의식과 물질주의적 삶에 대한 가치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즉 이 세대는 '해방전후복구세대'처럼 전통보수적 이미지에 물질주의적 성향이 더해진 이미지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뚜렷한 세대로 구분되는 가장 어린 연령집단에 속하는 '자율화 세대'와 '신인류세대'는 가장 나이든 연령 집단의 두 세대와는 두

드러지게 전혀 다른 이미지를 보였다. '자율화세대'부터 감각과 감성을 우선시하면서 새로운 문화와 유행에 대해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것이 이전 세대이미지들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큰 특징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무슨 일이든지 개인의 능력발휘가 우선시되며, 이를 위한 자기개발에 몰두하고, 그에 합당한 역할과 대우받는 것에 가치를 두는 능력과 역할에 대한 가치도 아주 뚜렷한 특징으로 등장했다. 이 세대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리는 전형적인 신세대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자율화세대'의 개방적 성향은 '신인류세대'에 이르면서 가장 뚜렷한 대표적 특징으로 자리잡았다. 뿐만 아니라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만의 개성을 마음껏 표현하고 행동하는 개인주의적 성향도 인상적으로 부각되었다. 이 세대는 나이는 어리지만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에 대한 나름대로 의식에 가치를 두는 것으로 보여졌다. 이런 이미지는 인접한 '자율화세대'에서는 절대로 보여지지 않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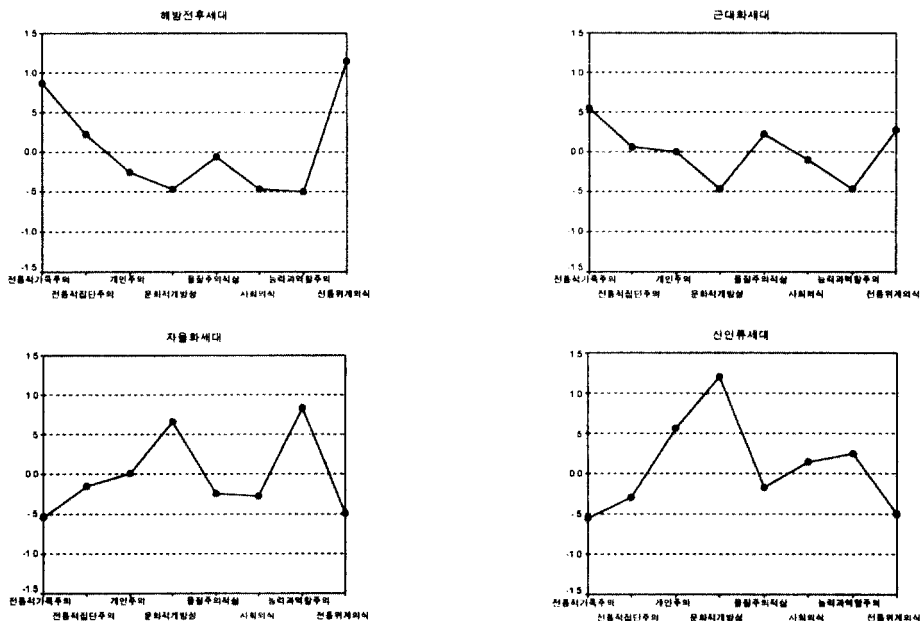


그림1. 해방전후세대/근대화세대/자율화세대/신인류세대의 8개 가치별 프로파일

※ 왼쪽부터 전통적가족주의, 전통적집단주의, 개인주의, 문화적개방성, 물질주의적삶, 사회적의식, 능력과 역할주의, 전통위계의식 순으로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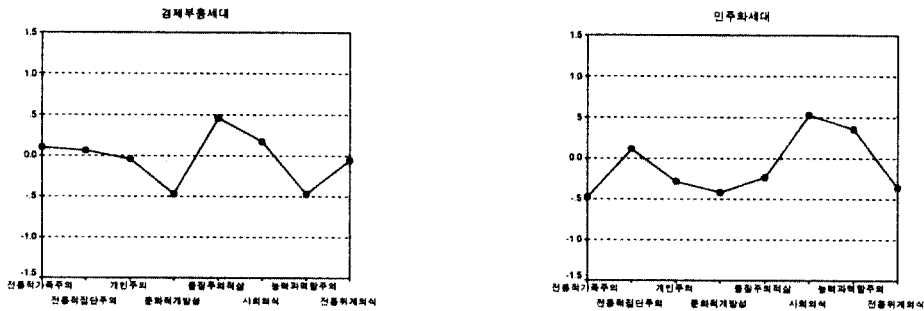


그림 2. 경제부흥기세대와 민주화세대의 8개요인별 프로파일

※왼쪽부터 전통적가족주의, 전통적집단주의, 개인주의, 문화적개방성, 물질주의적삶, 사회적의식, 능력과역할주의, 전통위계의식 순으로 제시

이기도 하였다. 반면, 자율화세대에 비해 능력과 역할 중심에 대한 가치는 다소 낮아졌다. 또한 이 어린 세대들은 가족이나 자식을 위해 돈을 벌거나 성공하는 것에 대해 가치를 별로 두지 않는다. 결국 한국사회의 어린 세대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새로운 것에 대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이미지로 그려졌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고령 세대집단들과 어린 세대집단들이 보이는 가치관의 변화의 분기점은 경제부흥기세대와 근대화세대에서 뚜렷하게 부각되었다(그림 2). '경제부흥기세대'의 사회적 표상은 바로 앞선 세대인 '근대화세대'부터 부각되었던 가족을 위해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성공하고자 하는 모습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더불어 전통적인 가치와 개인적 가치가 서로 비슷해지는 세대이기도 하다. 결국 이 세대는 이전 세대들과 달리 전통적인 가족주의와 위계의식에서 많이 벗어나기 시작한 세대였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자신보다는 자식을 위한 삶의 목표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인생을 바라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다른 세대들과 달리 '민주화세대'의 이미지는 좀 흥미롭게 나타났다. 인접한 '경제부흥기세대'에서 가장 특징적이었던 물질주의적 삶에 대한 가치는 급격하게 하락하고 능력과 역할중심에 대한 가치는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고령의 이전세대들부터 점차로 낮아지기 시작한 전통적 가족주의와 위계의식은 아주 낮아졌지만, 전통적 집단주의는 이전 고령세대부터 정해진 그 상태로 여전히 남아 있었다. 특히,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역사를 거친 세

대답게 다른 어떤 세대보다 사회의식이 높아 정치와 사회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성원으로써 합당한 자신의 역할과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세대집단들 간의 유사성

참가자들의 반응은 모두 6개 세대 조건에 대해 8개 지표로 응답한 것이다. 이 반응자료의 내적 유사성을 파악하기 위해 8개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 전체 세대에 대한 응답은 모두 4개의 군집으로 구분되었고, 각 유형은 기준으로 활용된 지표에 따라 각각 '전통·보수형', '개인·개방형', '중도·안정형' 그리고 '사회·개혁형'으로 명명되었다. 표 4는 각 4개 유형을 특징짓는 8개 요인들의 성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

'전통·보수형'은 전통적 가족주의, 위계의식과 집단주의 요인에 의해 특징적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개인·개방형'은 이들 성향에서는 낮았으나, 문화적 개방성과 능력/역할주의, 그리고 개인주의 요인에서는 다른 유형에 비해 아주 높은 성향을 보였다. '사회·개혁형'은 사회의식과 능력/역할주의 요인이 가장 대표적인 특성으로 나타나는 집단이었다. 그리고, '중도·안정형'은 물질주의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비교적 높은 '사회적의식'과 '전통적 가족주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집단이었다. 세대 모델로 구분하여 볼 때, 각 유형에 속하는 세대 모델의 분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 4. 군집분석에서 나타난 4개 유형의 가치 성향 비교

가치범주	군 집 유 형			
	유형1. 전통· 보수형	유형2. 개인· 개방형	유형3. 중도· 안정형	유형4. 사회· 개혁형
1. 전통적 가족주의	1.53	0.01	0.72	0.03
2. 전통적 집단주의	0.77	0.20	0.39	0.46
3. 개인주의	0.21	0.85	0.40	0.10
4. 문화적 개방성	0.00	1.59	0.01	0.09
5. 물질주의적 삶	0.53	0.31	0.94	0.24
6. 사회의식	0.20	0.22	0.78	1.16
7. 능력과 역할주의	0.01	0.99	0.04	1.14
8. 전통위계의식	1.45	0.00	0.38	0.10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한국사회의 세대모델은 연령적 구분에 기초하고 있다. 황상민·양진영(2001)에 의하면, 1925년에서 1934년 사이에 출생한 '해방전후복구세대'는 60대 중반에서 70대 중반의 연령층에 속하는 사람들 이고, '근대화세대(1940-1949년)'는 50대에, '경제부흥기 세대(1950-1959년)'는 40대, '민주화세대(1960-1969년)'는 30대, '자율화세대(1970-1979년)'는 20대, '신인류세

대(1980-1990년)'는 10대에 속하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각 유형을 세대를 구분하였던 연령집단으로 나누어보면, 우리는 각 연령집단이 동일한 유형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은 일군의 2·30대 성인들이 사회적 표상하고 있는 6개 세대집단을 다시 연령집단으로 구분할 때,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된 세대유형이 각 연령집단에 따라 각기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준다.

60대 이상의 연령층에 해당하는 '해방전후세대'집단을 가장 잘 대표하는 유형은 거의 전체를 차지한(96%) '전통·보수형'이었다. 50대 연령층을 구성하는 '근대화세대'집단은 유형 3인 '중도·안정형'이 56%와 유형 1인 '전통·보수형'이 44%를 차지하였다. 반면 40대 연령층인 '경제부흥기세대'집단은 '중도·안정형'(91.7%)이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나타났으나, 30대인 '민주화세대'집단은 '중도·안정형'(52%)과 유형 4인 '사회·개혁형'(48%)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20대가 주를 이룬 '자율화세대'집단에서는 '사회·개혁형'(54.2%)과 유형 2인 '개인·개방형'(45.8%)이 주요 유형들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어린 10대층인 '신인류세대'는 '개인·개방형'이 92%를 차지함으로써 이들의

그림 3. 세대집단별 대표적인 심리적 세대유형 분포

뚜렷한 대표유형으로 나타났다.

총 합 논 의

개인의 발달에 있어 사회문화적 맥락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한 문화권 내에서도 서로 다른 문화나 세대처럼 비교적 덜 보편적이지만 공유된 경험들은 성인이 발달을 다양하게 그려내기 때문이다(Bee, 2000). 특히, 한국 사회에서 개인의 자아는 자신이 속한 맥락 내에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발달한다. 그러나, 이 개인의 발달을 특징지을 수 있는 사회적 맥락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탐색은 심리학에서 그리 많지 않았다. 나를 나타내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인식하는 것이라면, 자신이 속하는 집단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무엇보다도 뚜렷한 사회적 맥락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연령에 기초한 위계적 질서를 강조하는 한국 사회에서 동년배 집단은 주요 발달적 맥락인 셈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행동 방식 또는 가치나 태도를 형성시키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사회적 맥락을 ‘동년배 집단’, 즉 ‘세대’로 가정하였다. 자아는 바로 자신이 속한 집단의 특성이고, 이 특성은 자신과 유사한 경험을 한 동년배 집단의 모습이었다. 동년배 집단은 세대의 이미지로 나타났으며, 이 세대에 대한 이미지는 특정 집단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표상이었다. 이것은 특정 세대 집단에 속하는 각 개인이 가지는 가치와 태도, 규범을 결정하는 행동의 틀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각기 다른 동년배 집단의 사람들은 각 연령대에서 해결해야 하는 발달과업이나 연령규범들과 상호작용하여 서로 비슷한 생애경로(life course)를 만들기도 한다. 특히 성인발달을 언급할 때 동년배집단, 즉 세대 개념은 그들이 가진 가치, 삶의 경험이나 태도에서 왜 그리고 어떻게 유사하게 될 것인지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이것은 서로 다른 연령층의 성인집단 사이에서 발견되는 태도, 가치, 기술이나 삶의 경험에서의 차이점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본 연구들은 2·30대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연구되어 다소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동년배 집단이 개인의 가치와 태도를 규정하는 발달적 맥

락으로서 작용하는 사회적 표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맥락은 각 동년배 집단의 속성으로 구분되기도 하였다. 비교적 동질적이고 집단주의적으로 살아왔던 한국 사회가 이제 각기 다른 모습을 가진 동년배 집단으로 구분되며, 이런 세대의 표상은 동일한 사회에 각기 다른 행동과 태도를 지닌 사회 집단을 출현시켰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일군의 성인초기 사람들은 개념적으로 제시된 6개 세대별로 각기 다른 세대이미지를 그려내었다.

‘해방전후복구세대’와 ‘근대화세대’는 전통가치에 기반을 둔 모습이었고, ‘경제부흥기세대’는 물질주의적 성공과 사회적 성공에 전념하는 모습이었다. ‘민주화세대’는 개혁세대로서, ‘자율화세대’는 새로운 것을 감각적으로 수용하는 개방적 성향의 이미지로서, 그리고 ‘신인류세대’는 자기표현을 마음껏 뚜렷하게 하는 이미지로서 그려졌다. 이렇게 세대별로 그려진 이미지들 간의 유사성에 따라 4개의 세대유형-전통·보수형, 중도·안정형, 사회·개혁형, 개인·개방형으로 다시 구분되었다. 이것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세대임을 경험하고 인식할 때, 심리적으로 구분하는 유형일 수 있다. ‘해방전후복구세대’는 ‘전통·보수형’이, 근대화세대는 ‘중도·안정형’과 ‘전통·보수형’이, 경제부흥기세대는 ‘중도·안정형’이, 민주화세대는 ‘중도·안정형’과 ‘사회·개혁형’이, 자율화세대는 ‘사회·개혁형’과 ‘개인·개방형’이, 신인류세대는 ‘개인·개방형’이 각기 대표적이었다. 한국사회의 60대이상인 최고령인 ‘해방전후복구세대’, 한국사회의 허리역할을 하는 40대인 ‘경제부흥기세대’와 가장 어린 청소년층인 ‘신인류세대’는 각기 하나의 유형들로 뚜렷하게 대표되지만, 이들 세대들의 중간다리역할을 하는 세대인 50대의 ‘근대화세대’, 30대의 ‘민주화세대’와 20대의 ‘자율화세대’는 각기 두가지 유형들이 서로 섞여서 존재하였다.

이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세대차를 논할 때 단순히 연령에 기초한 세대집단에 따른 차이를 논하기 보다는 심리적 세대 집단 간의 차이를 논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동일한 연령대에 속하는 세대 구성원들 간 가치관이나 특성의 차이가 크며, 이것은 동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현상이 다르게 받아들여진다는 사실도 뒷받

침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사회적 현상으로서 월드컵 응원, 공동체주의나 10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반미운동현상을 이해하고 행동하며 경험할 때 나타나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단순히 연령적으로 구분한 세대개념보다 가치와 라이프스타일에 기초한 심리적 세대유형이 보다 분명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 문화의 이중성과 세대차와의 관계를 다른 시각으로 해석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나은영·민경환(1998)에 의하면, 한국문화의 이중성은 기성세대가 근대적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관행과 행동을 하기 때문인 반면 신세대는 탈현대적 생각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중성이 적다고 하였다. 그러나 뚜렷한 세대특성유형을 보이는 세대들, 즉 '전통·보수형'의 '해방전후복구세대'와 '중도·안정형'의 '경제부흥기세대'는 기성세대이지만 10대의 신세대처럼 자기 세대적 가치에 맞게 행동하기 때문에 이중성이 적을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동년배 집단 내에 다른 세대특성유형들이 함께 공존하는 세대들, 즉 근대화세대(전통·보수형과 중도·안정형), 민주화세대(중도·안정형과 사회·개혁형)와 자율화세대(사회·개혁형과 개인·개방형)가 서로 다른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중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20-30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이 결과를 선불리 일반화하기는 무리가 있다. 향후, 한국사회의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각기 다른 세대별 가치와 라이프스타일을 특징짓는 심리적 요인을 발견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각 세대를 특징짓는 동년배집단의 이미지가 사회적 표상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을 통해 한국 사회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세대집단의 행동과 사고 방식을 예측할 수 있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세대의 이미지'로 나타나는 사회적 표상이 구체적인 사회화 과정에서 각 개인의 성격과 행동 특성을 규정하는 구체적 발달 맥락으로 작용하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것은 소위 보편적인 심리 발달 변화를 보여주는 연구일 뿐 아니라, 개인적 변화에 국한되지 않은 서로 다른 역사적 혹은 문화적 상황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비롯되는 여러 연령집단 간의 차이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과정도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구자숙·한준·김명언(1999). 세대격차와 갈등의 사회심리학적 구조 심리과학,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과학연구소
- 김명언·김의철·박영신(2000). 청소년과 성인간의 세대차이와 유사성.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6(1), 181-204.
- 나은영·민경환(1998). 한국문화의 이중성과 세대차의 근원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기존 자료 재해석.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4(1), 75-93.
- 나은영·차재호(1999). 1970년대와 1990년대 간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와 세대차 증감.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3(2), 37-60.
- 동아일보(2000). 386세대의 두얼굴. 2000-02-16, 29면
- 송인섭(1998). 인간의 자아개념 탐구. 학지사.
- 조선일보(2000). 코멘트 족. 2000-06-19, 37면
- 최상진·김기범(1999). 한국인의 Self의 특성 : 서구의 self개념과 대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3(2), 275-292.
- 차재호(1985). 70년대말에서의 가치, 태도 및 신념으로 본 한국인의 세대차. 사회심리연구, 2(2), 129-168.
- 한규석·신수진(1999). 한국인의 선호가치 변화-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로.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3(2), 293-310.
- 황상민(1997). 부모와 청소년 자녀 간의 세대차에 대한 사회인지적 분석. 한국 심리학회지 : 발달, 10(2), 152-166.
- 황상민(1999). 세대의 계열과 인생주기를 통한 미래사회 성격의 예측. 현상과 인식, 겨울호.
- 황상민·양진영(2001). 한국사회의 세대차와 한국인의 심리발달의 특성에 대한 탐색. 연세대학교 인간행동연구소 제1차 국제심포지움 자료집, 6월.
- Bee, H. L.(2000). *The journey of adulthood*, New Jersey : Prentice-Hall.
- Conway, M. A.(1997). The inventory of experience : Memory and identity. In J.W. Pennebaker, D. Paez & B. Rime(Eds.). *Collective memory of*

- political events :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s*(pp. 21-45). Mahwah, NJ : Erlbaum.
- Erikson, E. H.(1959). *Identity and the life cycle*. New York :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Havighurst, R. J.(1948).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New York : McKay.
- Inglehart(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itayama, S., Markus, H. R., Matsumoto, H., & Norasakkunkit, V.(1997). Individual and collective process in the construction of the self : Self-enhance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self-criticism in Ja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6), 1245-1267.
- Levinson, D.(1978). *The seasons of a Man's Life*. New York : Ballentine Books.
- Mannheim, K.(1976).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Markus, H.R., & Kitayama, S.(1991). Culture and the self :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253.
- Moore, B., & Fine, B.(1990). *Psychoanalytic terms and concepts*.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 Purkhardt, S.C.(1993). *Transforming social representation*, New York, NY : Routledge.
- Rogers, C. R.(1951). *Client-centered therapy*. Boston : Houghton Mifflin.
- Rogoff, B.(1990). *Apprenticeship in thinking*.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Triandis(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CO : Westview Press.

한국사회의 세대집단에 대한 심리학적 탐색 : 전이적 공존 관점을 통한 대학생 집단의 세대 이미지 분석

부록 1. 세대로 경험한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과 그 세대적 특성

세대	출생년도 (청소년기)	정치적 상황	경제적 상황	사회적 상황	세대특성
해방전후 복구세대	1925-1934 (1943-1954)	이데올로기의 대립 - 식민/해방/6.25전쟁 - 사사오입개헌	식민경제 및 원조경제 - 농업중심 - 대다수 절대빈곤층	전후복구시대 - 대부분 국졸이하	- 집단주의/권위주의적 가치관 : 연장자존중, 예절/서열중시 - 생존카치로서 물질주의 지향 - 성역할 고정적, 직업귀천명확 - 부/권력, 무병/장수, 아들 가치
근대화 세대	1940-1949 (1959-1969)	군사장권/관료제 - 4.19 / 5.16 - 한일국교정상화 - 베트남전쟁 참전 / - 1.21사태	원조경제 및 경제개발시도 - 경제개발시도 - 노동집약적 산업 (경공업, 식품/의류)	규범과 모방시대 - 출산억제정책 - 반공의식 강함 - 학력수준 증가 - 농촌에서 도시로 인력 이동 시작	- 집단주의/권위주의적가치여전 : 국가지도하 단결 : 전체주의적 규율 적용 - 부/권력 추구 계속 강화 - 공산당/이념 경제교육 - 자녀의 가치 강조 : 교육육구증가, 자녀교육중요 - 일할 기회증대, 숙련공 - 미국문화의 열풍
경제 부흥기 세대	1950-1959 (1969-1979)	독재관료제 - 유신체제돌입 - 판문점사건 - 12.12사태	수출진흥경제개발 - 새마을운동 - 지하철개통 - 석유파동 - 대기업성장 - 자본집약적 산업 (중화학공업)	산업사회 및 집단동원시대 - 학력수준 상승 (고졸) - 자녀교육비 증가 - 본격적인 도시화	- 물질주의적 성공/출세가치 : '나도 남처럼 잘 살아보자' : 개인 노력에따라 지위상승 -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가치 공존 : 샌드위치세대 - 지위 상승과 자녀교육 - 가정내 성역할 분업정착 - 화목한 가정, 경제적 안정
민주화 세대 (386세대)	1960-1969 (1979-1989)	민주화과도기 - 5.18민주항쟁 - 남북고향방문단 교류 - 6월민주항쟁 - 7.9월노동자투쟁 - 올림픽	고도의 경제성장기 및 국제화 - 경제적 성장과 안정 - 국제적 교류 확대 - 기술집약적 산업 (전자산업, 자동차산업)	사회운동시대 - 이념을 행동화 - 각종 규제 해제 (통금, 교복) - 핵가족화 - 중등교육보편화 - 중간계급중심의사회	- 집단주의적 가치거부 및 개인주의 추구/노력 : 집단가족회생 무시 - 강한 비판의식, 체제저항 : 정치적 감각민감 - 지위 상향이동 폐쇄 : 일보다 여가시간선호 - 성 역할 고정관념 붕괴 - 준법과 합리적 판단의 대결 - 자유/평등, 경제적 여유, 화목한 가정에 가치
자율화 세대 (X세대)	1970-1979 (1989-1999)	민주화정착기 - 문민정부 - 정치세대교체 가속 - 통일문제	경제적 자립/고착 - 정보화산업시작 - 금융실명제, IMF - 국제화진행에 따른 경 제규모에 연관된 국가정 채성의 위기	다양화(변화)시대 - 집단규범과괴 - 성수대교/삼풍붕괴, 대구지하철폭파 - 대졸 증가 - 여성운동확산 (서울대조교성희롱 사건)	- 개인주의적 성향 뚜렷 : 독립적, 자기중심적, 자기관심사만 집중 - 사고와 행동특성이 단편적 생각 /사색보다 행동이 먼저 - 대중문화에 열광 - 대중 사회화와 의식 - 전문직 증가 - 자유, 자아실현, 여가, 쾌락주의 적 삶에 개인적 가치를 둠
신인류 세대 (N세대)	1980-1990 (1998-2010)	통일시대 - 남북간 교류증가	경제적 혼란위기 - 새로운 경제적 혼란 과 기회 시기	정보화시대 - 끊임없는 사회환경 의 변화와 혼란 - 가족형태의 분화 - 노령화사회 - 공공집단교육변화	- 개인주의적 가치 당연 : 재미, 개성과 감각 추구 - 개인적 관심과 인간관계가 사이버공간으로 확장 : 복합적 정체성 - 자유로운 선택권선호

부록 2. 연구2에 사용된 나머지 5세대지문카드(근대화세대 제외)

<해방전후복구세대>

"이들은 현재 60대중반에서 70대 중반 사이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1925년과 1934년 사이에 태어난 이들은 성인으로 성장하는 동안에, 1945년 일본 식민치하에서의 해방, 1950년 6.25전쟁과 1953년 휴전과 남북분단, 이승만 정권하에서 1.2공화국, 1954년 사사오입개헌 등을 경험하였다. 당시 경제적 상황은 식민경제와 다른 나라로부터의 원조경제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농업중심의 경제체제하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절대 빈곤층에 속하였다. 이들에게 궁핍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였다. 따라서 교육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쏟을 수 없었고, 대다수의 국민이 국졸이하의 학력을 지녔다. 나라와 자신이 속한 집단의 목표를 중시하며, 여전히 유교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었다. 노년기를 보내는 이들은 지나는 자신의 일생을 되돌아 보면서 정리하고 통합하려고 한다. 자신에게 친숙한 것에 대해 애착을 보이고 자신의 흔적을 자손 세대에 남겨주려고 한다."

<경제부흥기세대>

"이들은 현재 40대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일명 '샌드위치 세대'라고 불린다. 1950년에서 1959년 사이에 태어난 이들은 자라면서 박정희 정권 하에서 제 4공화국, 1972년 유신체제돌입, 1974년 육영수여사 저격사건, 1976년 8.18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1979년 12.12사태 등을 겪었다. 당시 경제적 상황은 1971년 새마을 운동, 1974년 지하철(1호선) 개통, 1979년 석유파동이 있었고, 정부가 중화학 공업 중심의 자본집약적 산업을 통해 수출중심의 경제개발을 주로 했으며, 정책적으로 대기업을 육성하였다.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산업화 시대로써 고도의 경제 성장기를 맞이하였고, 도시화현상도 두드러졌다. 학력수준이 급증하여 고졸의 비율도 높아졌으며, 자녀의 교육비 지출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들은 우리나라 경제개발의 주역으로써, 물질주의적 성공과 출세 지향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자신이 속한 조직과 가정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또한 집단적 가치와 전통적이고 보수적 가치보다 개인적 가치와 현대적인 가치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지만 이들의 일상생활 속에는 이렇게 상충되는 가치들이 서로 혼재되어 나타난다. 현재 중년기인 이들은 삶의 전반에 걸쳐 수많은 혼란과 갈등을 겪으면서 자신에게 적합한 새로운 삶을 모색해서 안정을 찾고자 한다. 후배양성 및 지도와 포용력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크고, 전문적인 지식과 자기이해가 보다 성숙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민주화세대>

"이들은 현재 30대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일명 386세대라고 불린다. 1960년에서 1969년 사이에 태어난 이들은 자라면서 전두환 정권하에서 제5공화국, 1980년 5.18광주항쟁, 1985년 이산가족찾기운동 및 남북고향방문단교류, 1986년 아시안게임,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7.9월 노동자 투쟁, 1988년 노태우 정권의 제6공화국 출범, 1988년 서울 올림픽 등의 상황들을 경험하였다. 당시 경제적 상황은 전반적으로 성장과 안정의 시기였으며, 전자산업과 자동차 산업 등과 같은 기술집약적 산업이 발달하였고, 국제적 교류가 개방,확대되었다. 사회적으로는 사회운동의 시대라 불릴 만큼 신념과 이념을 행동을 실천하였으며, 통금해제, 교복자유화, 두발자유화, 해외여행자유화 등 이전의 각종 규제들이 사라졌다. 중산계층이 성장하여 중간계급 중심의 사회로 전환되었고, 가정들이 핵가족화되었다. 한편, 중등교육이 보편화됨에 따라 대학진학률이 전 인구의 30%에 이르게 하였다. 이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 집단적 가치보다 개인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엘리트주의적 사고에 의해 합리성과 비판의식이 강하며, 드러내놓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다. 현재 이들은 경제적 안정과 직업적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돈을 벌고 자녀를 양육해야 할 책임감도 느낀다.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며, 스스로 무엇인가 이루려고 시도하고자 한다."

<자율화세대>

"이들은 현재 20대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일명 X세대라고 불린다. 1970년에서 1979년 사이에 태어난 이들은 1993년과 1998년 김영삼과 김대중 대통령의 문민정부 출범, 1995년 GNP \$10000 시대, 1996년 OECD가입, 그리고 1997년 IMF구제금융 요청 등 일련의 과정을 보아왔다. 경제적 상황은 90년대에 들어 정보화 산업을 새로이 받아들였고, 생활수준이 급성장하였다고 믿고 있던 중 맞이한 IMF의 시련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지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정부가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을 우호적으로 대하는 것을 보았고, 이데올로기나 사상논쟁에 휩싸이지 않고 비교적 자유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 또한 1995년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대구 지하철 폭파 사건 등 인재에 의한 일련의 사건, 사고들을 통해 사회와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을 경험하였다. 대졸학력이 증가하였고,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을 전후하여 여성운동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으며, 차츰 그 세가 확산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이들이 개인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였다. 이들은 집단논리를 혐오하고 개인적 차원의 규범을 만드는 성향이 있다. 대중문화에 열광하면서 동시에 개인주의적 가치들을 아주 선호한다. 현재 이들은 사회초년생으로서 자신의 이상과 비전 만들기에 열중한다. 미래를 위해 준비하면서 자신만의 인생을 처음으로 설계하기 시작한다. 또한 인생의 스승을 찾고 다른 사람들과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신인류세대>

"이들은 현재 10대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일명 N세대라고 불린다. 1980년에서 1989년 사이에 태어난 이들은 2000년 남북이산가족 상봉,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등 남북간 교류가 증가하고 민족적 화합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기업의 구조조정이 가시화되고 젊은이들 사이에서 벤처창업의 열풍이 부는 등 급격한 변화와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컴퓨터와 인터넷은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혹은 그 속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기를 꺼리지 않는다. 또한 '엽기'와 같은 새로운 의미의 언어 만들기를 즐긴다. 이들은 편리함, 빠름, 이용, 자유, 개성, 재미, 감각 등에 큰 가치를 둔다. 청소년인 이들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불안한 과도기적 상태에 놓여있고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려고 시도하며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하려 애쓴다. 이들에게는 또래인 친구들이 아주 중요하고, 그들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The Image of Generations in Korean Society with Transferable Coexistence Perspective

Sang-Min Whang and Jin-Young Yang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e image of cohort groups in Korean Society has been scrutinized in a frame of social representation. In order to identify the existence of diverse cohort groups and to compare them, the indices of values and lifestyles have been examined. At study 1, 179 college students have participated to describe their values and lifestyles with 89 items which have been extracted at pilot study. For the values & life styles of cohort groups in Korean society, 8 summarizing factors with 57 items were drawn: Traditional familism, traditional collectivism, individualism, materialism, social consciousness, focused-ability and role, and traditional hierarchy. At study 2, 25 respondents have joined to characterize the 6 cohort groups in unstructured Q-sorting task with 159 items, included the 57 items at study 1. The social representation of 6 cohort groups were significantly distinguishable with 8 indices of values & life styles in Korean society. After we have clustered the 6 cohort groups with 8 indices, we identified four prototypical social representations to characterize the generational images in Korean society: traditional conservatism, individual openness, social innovation, and security seeking semi-bourgeois groups. The change of cohort images in a frame of social representation will be explored further with the generational profile by the change of Korean.

Keywords : *generation, cohort group, generational image, social representation, generational profile*

원고접수 : 2002년 9월 28일

심사통과 : 2002년 11월 7일